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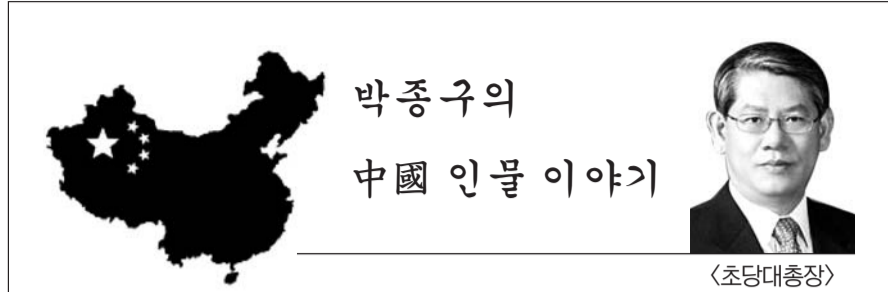
스가 '아베 계승'...한일관계 강경 입장 고수

한국 법원 일본 징용기업
자산 매각 댄 보복조치 시사
아베 야스쿠니 참배는 반대

베 총리에게 조언을 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스가 정권의 외교 정책은 아베 정권 '시준'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본의 대(對)한국 정책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스가 총재는 지난 6일 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약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이 일한(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이 꼼꼼하게 읽혀야 하는 것(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7일 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2018년 10월 한

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베 정권의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스가 총재는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으로서도 수많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스가 총재는 지난달 4일 관방장관 브리핑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와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1일 일본 민영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선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한국 때리기'를 주도한 아베 총리가 물러나고 일본에서 새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한일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 12일 일본기자클럽 주최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일미(미일) 동맹을 기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확실히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및 중국과도 항상 의사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9일 자민당 총재 선거 '소견 발표 연설회'에선 "중국을 비롯한 근린 국가와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중국만 언급했지만, 12일에는 한국도 함께 거론했다. 게다가 그는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당시 "경제 재생이 우선"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아베 총리와는 달리 "뱃속부터 우파"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연합뉴스



박종우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49〉 육유

육유(陸遊, 1125~1210)의 자는 무관(務觀)이고 호는 방옹(放翁)으로 현재의 절강성 소흥시에 해당하는 월주 산음현 출신이다. 남송의 대표 시인 중한 명으로 우국시인(憂國詩人)으로 오래 존송되었다. 부친은 육재로 군사관련 일을 맡은 관리였는데 평소 문학에 관심이 큰 장서이기도 하였다. 부친이 관명에 따라 남방의 물자를 개봉으로 운반하는 도중 회하의 배안에서 태어났다. 유아 시절 금나라가 개봉을 유린해 휘종과 흠종이 북으로 끌려가고 북송 왕조가 무너지는 정강지변이 발생했다. 부득이 일가와 함께 강남으로 피난했다. 집안의 영향으로 일찍이 시문에 재주를 발휘했다. 20세때 당원과 결혼해 금

에게 술과 음식을 보냈다. 이에 감격해 쓴 시가 유명한 채두봉(釣頭嶼)이다. 아래는 시의 마지막 구절이다. "산같은 맹세 아직 남았지만 글로써 전하려니 다할 길 없구나. 말아야지. 말아야지. 말아야지"(山雖在 錦書難託 莫, 莫, 75세가 되는 1199년 육유는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난 당원을 여전한 그리워했다. "흔 끼고 향기마저 사라진지 어언 40년..."으로 시작되는 오언절을 남겼다. 그녀에 대한 육유의 사랑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육유의 대표 작품은 역시 우국우민을 노래하는 시에서 많이 발견된다. 북송 멸망 후 고향을 떠나 타지인 남쪽에서 살아야 했던 많은 이주민의 애환을 노래했다. 금수만도 못한 금나라를 이겨 안의 영향으로 일찍이 시문에 재주를 발휘했다. 20세때 당원과 결혼해 금

시 1만수 남긴 남송의 대표 우국시인

이 좋았다. 그러나 모친이 집안 친척인 며느리를 싫어해 부득이 이혼하고 왕 씨와 재혼했다. 1153년 진사시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재상 진희의 손자가 차석이 되자 진희는 이를 시기해 최종 시험인 전사에서 육유를 낙제시켰다. 실의에 빠져 고향으로 낙향해 시작에 여러 지방에서 근무했다. 융흥 통판으로 재직 중 장준의 주전론을 지지해 해임되었다. 죽은 장준의 명예를 꺾었으나 금과 남송과의 화평을 비난하는 꼴이 되어 부득이 관직을 떠나게 된 것이다. 4년후 46세에 기주 통판으로 다시 임명될 때까지 고향에서 남인 생활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주전파와 주화파의 갈등속에서 힘든 관직생활을 했다. 1189년 남송 효종이 태자 조돈에게 양위하니 광종이다. 화평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전파의 일원인 그는 실직하게 되었다. 예부낭중의 직위에서 탄핵되었다. 관직을 떠나 귀향해 자기 집을 풍월헌(風月軒)이라 짓고 말년에 창작에 전념했다. 죽을 때까지 1만수에 달하는 작품을 남겨 중국 시사상 최다작의 시인으로 평가된다. 진사시에 실패하고 낙향해 고향에서 실의의 나날을 보내던 중 우연히 야유회에 나온 첫부인 당원을 만나게 된다. 당원은 재혼한 남편에게 청해 육유

염원을 담은 대표시의 하나가 사지춘(謝池春)이다. "진관의 북녘 땅은 또 어디냐. 지난날 세월 탄식하노나니 흐트러져 지나갔네." 시대를 아파하고 나라의 명운을 걱정하는 우국시인의 총정 과한이 절절하게 표출된다. 1177년 지은 관산월(關山月)이라는 시도 중원 회복의 바람을 절절히 묘사하고 있다. "중원에 예로부터 전쟁은 많아서 반역의 귀족들 자손을 못 낳았는데 유민들 죽음을 무릎쓰고 회복을 원하는가" 말년에는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져 집안에서 애용한 술잔까지 팔아야 할 처지였다. 권신 한탁주의 천거로 1202년 출사했다. 효종, 광종 실록 편찬의 일이었다. 그러나 1년만에 다시 귀향해 1209년 12월 세상을 떠났다. 한평생 끈기 살아온 그의 삶에서 말년 한탁주의와 인연은 큰 오점을 남겼다. 한탁주는 권력 강화를 위해 주희 등 유학자를 숙청한 경원위학지금(慶元熨學之禁)을 일으킨 간신이었다. 송사간신전에 포함될 정도로 문제의 인물이었다는 데 말년에 사는 것이 공평해지지 않을 수 없는 출사였다. 마지막 시는 '아들에게'라는 제목의 칠언절구로 중원을 수복하게 되면 제사를 모시고 그 사실을 아비에게 고하라는 내용이었다. 남송 최고의 우국시인다운 절명시(絶命詩)가 아닐 수 없다.

두달 남은 美 대선...바이든 51%·트럼프 46%

지난달보다 격차 좁아져
미국 대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5%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7~10일 투표 의향이 있는 1191명을 조사한 결과 바이든 지지율이 51%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46%)을 앞질렀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바이든 49%, 트럼프 42%로 7%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9개 현안 중 8개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이중 국민 통합, 인종 차별에서 특히 격차가 컸다. 바이든 후보가

각각 54%, 53%를 얻어 둘다 41%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보다 우위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우위를 점한 현안은 경제(51%)로, 바이든(46%)보다 5%포인트 높았다. 바이든이 앞서는 지지층은 여성, 교외 거주자, 고령층, 밀레니얼 세대, 중남미계, 흑인이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남성, 시골 거주자, 천주교 내 백인, X세대, 참전용사 등에서 앞섰다. 응답자들이 꼽은 걱정거리로는 실업률(87%), 코로나(83%), 범죄 및 폭력(64%)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있다고 보는 지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완전히 통제됐다'는 답은 11%에 그쳤다. /연합뉴스



수색견 동원 산불 희생자 찾기 미국 오리건주 밸런트에서 13일(현지시간) 수색·구조팀이 수색견을 데리고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주택가를 뒤져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사스와 에이즈 합성해 만들었다"

인위적 조작설 주장 나돌아
과학계는 "자연 발생적 변종"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기원이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해 만들었다는 주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홍콩대 소속 엔리명 박사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발원했다고 주장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데 이어 코로나19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을 합성해 만들었다는 게시글이 중국 인터넷에서 게시되기도 했다. 해당 글은 중국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인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했다. 확인 결과 해당 글은 평즈중 실장의 명의를 도용해 익명의 작성자가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의 기원 논란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태형 테라젠바이오 수석연구원은 "게놈 조작 흔적은 들여다본 과학자들의 발표 내용은 인위적 조작이 아닌 자연 발생적으로 변종이 됐다는 것이었다"며 "유전자 분석 논문만 10여 편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